

1936년 상하이 항일집회와 시위

- 각계구국연합회를 중심으로*

박 지 수**

국문초록

1936년 상하이 구국회의 항일집회와 시위는 훈정체제 하에서 민간주도형 집회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구국회는 1935년 12월에 결성된 이래로 1936년 11월까지 다양한 항일집회와 시위를 조직하였다. 구국회는 항일기념일에 기념대회나 시위를 먼저 조직하여서 일정 인원을 먼저 동원한 뒤에 시민대회를 조직하였다. 구국회는 단체의 역량을 통합할 전국조직을 결성하였지만, 정부의 강도 높은 탄압으로 인하여 공개적인 집회를 조직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구국회는 집회보다는 시위에 중점을 두는 변화가 나타난다. 구국회는 집회와 시위에서 선전대, 구호, 노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구국회의 집회와 시위에는 시민뿐만 아니라 중국인 군경까지 참여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항일 주장과 함께 민주 민의를 내세웠다. 이러한 집회의 변화상은 구국회가 공산당에게 받은 영향과 민족연합전선을 지향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제어 구국회, 항일집회, 항일시위, 기념대회, 시민대회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전국각계구국연합회의 기념대회와 항일시위 |
| II. 각계구국연합회의 시민대회 | IV. 맺음말 |

I. 머리말

근대 중국에서 대중집회는 1901년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에 대응하는 문명적인 배외운동 방식으로 처음 조직되었다. 1919년 5.4운동을 기점으로 대중집회는 ‘국민대회’의 명칭과 방식으로 전국에 확대되었다. 이는 인민이 국민의 자격으로 집회에 참여하여, 국가적 국민적 사안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고 이를 대내외 정부에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논문 「근대 중국의 대중집회 연구, 1901~1945」 중 5장 2절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강사 / qsophy@naver.com

표현하는 것으로 집회와 시위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회는 1920년대에 ‘시민대회’로 그 명칭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민간사회에 보편화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1927년 난징 국민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중집회는 주도 세력에 따라서 일당제 정부가 조직하는 정부주도형 집회, 민간단체가 조직하는 민간주도형 집회, 시당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조직하는 관민합작형 집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화되었다. 훈정체제 하에서 민간단체와 시민의 집단행동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었으나,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단기간에 항전을 촉구하는 민간주도형 집회가 조직되었다. 1930년대 민간주도형 집회는 국민당 정부를 향하여 항일 민의를 주장하는 것에서 민주 민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때, 국민당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유보했던 반면, 공산당은 민간사회의 항일운동을 정치 세력을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하면서 집회에도 개입하였다. 이것은 훈정 체제 하에서 민간사회에서 조직하는 집회와 시위가 지속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

이에, 민간사회의 집회는 기존의 시민대회의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탄압을 피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¹⁾ 특히, 1930년대 민간사회의 집회가 고조되었던 시기로 1931년과 1936년을 주목해 볼 수 있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과 1935년 12월 일본의 화북 분리 운동이 중국인들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정부의 강한 통제에도 민간사회의 항일집회가 조직되었다. 1931년 항일집회는 시민대회의 방식에 시당부가 항일단체의 항일운동에 개입하거나, 이와 별개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조직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반면, 1936년 항일집회는 北平 學聯의 청원 시위를 시작으로 구국회가 전국에 조직되면서 확산되었다. 구국회의 집회는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서 진행 방식이 일부 변형되었기에, 민간주도형 집회의 방식에 지속성과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상하이선 적극적 항일 민의를 표현한 지역이면서, 구국회의 전국기관이 수립된 곳이었다. 구국회는 1935년 12월에 상하이에서 각계별로 조직되기 시작하여, 구국연합회, 각계구국연합회와 각 성·시구국연합회로 발전하였고, 전국각계구국연합회를 결성하였다. 1936년 첫 항일집회를 조직하는 1월부터 구국회의 주요 인물 7인이 체포되는 ‘七君子 사건’이 발생하는 11월까지, 상하이 구국회는 항일 선전을 위해서 다양한 기념일에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36년 구국회와 관련된 연구는 참여한 지식인과 관련한 정치사상과 활동을 분석한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항일통일전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주목하거나, 주요 활동가 7인의 활동과 사상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²⁾ 이는 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던 주석단, 연설자, 지휘부의 활동 이력과 주장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구국회의 정치활동과 그 이념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1) 본 글에서 사용하는 ‘민간사회’의 개념은 공공문제의 논의에 참여하는 직능별 집단의 자율적 결집의 영역을 의미한다. 서구의 시민사회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립한 공민의 영역인 것에 비하여, 민간사회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립 지향하면서도 그것의 보완 지향을 갖는 영역이다(백영서, 「中國에 市民社會가 형성되었나?: 역사적 관점에서 본 民間社會의 궤적」, 『아시아문화』 10, 1994, 10쪽).

2) 平野正, 『中國革命の知識人』, 日中出版, 1977; 水羽信男, 「1930年代の上海における章乃器の抗日統一戦線論: あわせて緒形康氏の批判に應える」, 『アジア社會文化研究』 21, 2020; 周天度, 「救國會史略」 『現代史研究』 1, 1980; 周天度, 孫彩霞, 『1936~1949 救國會史』, 群言出版社, 2008; 周天度, 『七君子傳』, 中國社會科學, 1989.

구국회가 조직한 집회와 시위의 지향점과 특징을 파악하는데 큰 시사점을 준다.³⁾ 이는 구국회의 민족연합전선론이 집회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구국회의 대중활동론을 분석하면서, 선전 방식과 집회, 시위 전략의 특징을 제시한 점은 구국회가 조직한 집회의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그밖에, 구국회의 변화상과 관련하여 조직현황, 공산당과의 관계, 주요한 항일 활동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⁴⁾

구국회의 집회와 시위는 단체의 정치이념과 항일운동의 분석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졌다. 이때, 구국회의 항일집회를 중국에서 발전해온 집회의 변화상과 연계하여 파악하려는 시각은 나타나지 않는다. 구국회의 집회를 시민대회 방식과 비교하는 것은 혼정 체제하에서 민간주도형 집회가 정보주도형 집회에 흡수 되지 않고, 변화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민간사회가 기존의 집회경험을 통해서 항일민의를 결집하여,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데 이용한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1930년대 민간주도형 집회의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1936년에 구국회가 조직한 항일집회와 시위에 집중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상하이 구국회는 1935년 12월에 조직되어 1937년까지 활동을 지속하였으나, 1936년 11월 이후로는 대중운동을 조직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구국회가 상대적으로 조직을 확장해 나가면서, 집회와 시위를 활발하게 조직했던 193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구국회가 전국기관을 설립하기 전후의 시기를 나눠서, 1936년의 전반기와 후반기의 항일집회와 시위의 양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구국회는 전국조직을 결성한 이후로 정부의 강한 탄압을 받으면서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았다. 전반기는 구국회의 집회와 시위에서 기존의 시민대회의 방식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를 파악하고, 후반기는 정부의 강한 규제 속에서 구국회의 집회와 시위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각계구국연합회의 시민대회

1. 12·9 베이핑 학련 청원 시위와 구국회 조직

중화민국에서 민간주도형 집회는 대규모 항일운동이 조직될 때마다 크게 발전하였다. 1920년대 대중집회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시민대회로 보편화되었다. 시민대회는 1919년 5.4운동기 국민대회가 그 명칭을 시민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것은 민간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조직을 결성하고, 단기간에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하여

3) 김정현, 「1930年代 中國 知識人の 政治活動과 理念: 救國會를 中心으로」 『동양사학연구』 27, 1988.

4) Parks M. Coble, Jr. "Chiang Kai-shek and the Anti-Japanese Movement in China: Zou Tao-fen and the National Salvation Association, 1931-1937", *The Journal of Asian Studie*, 1985.2; 陳偉桐, 「略論共產黨與救國會的抗日統戰主張」, 『抗日戰爭研究』 2, 1997; 王玉, 「抗戰前上海地區的抗日救國運動: 以救國會為中心的探討1935~1937」, 國立政治大學歷史研究所博士論文, 2002.

평화적인 방식으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는 것이다. 시민대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주석 선출, 연설, 결의안 표결, 선언문 발표의 절차로 구성되며, 집회 이후에는 참여자들이 시위에 참여한다.

이러한 시민대회는 1930년대 항일운동에서도 지속되어 나타났다. 1931년 만주사변이 발생한 이래로 국민당 정부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을 피하였다. 1932년 5월 5일 中日上海停戰協定이 체결된 이후로 정부는 민간사회의 집회, 시위, 언론은 통제하였다. 정부는 국민당의 무저항 정책을 비판하거나 항일을 요구하는 것을 ‘중화민국을 위협하게 한다.’고 하여 금지하거나 탄압하였다.⁵⁾ 이러한 상황에서 1935년 12월 9일 베이핑 학련의 청원 시위는 침체되었던 대중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일본은 1933년에 만주 지역을 장악하여 식민지로 만든 이후로, 1935년 6월 국민당 정부와 何梅協定을 체결하면서 화북지역의 점령을 계획하였다. 이 협정은 국민당이 河北과 北平, 天津의 국민당 당부를 해산하여 허베이성에 주둔하는 병력을 철수시키고, 전국의 반일활동을 금지하도록 하였다.⁶⁾ 화베이는 중국의 가장 주요한 세원으로서 관세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전 인구의 5분의 1과 주요 산업도시들이 화베이 5성에 분포된 곳이었다.⁷⁾

국민당은 1935년 6월 10일 「敦睦邦交令」으로 항일언론 및 단체결성을 금지하였다. 반면, 중국공산당은 1935년 8월 1일 전국 인민의 단결을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하는 반제통일전선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공산당은 「爲抗日救國告全國同胞書」에서 ‘모두 내전을 정지하고 모든 국력을 항일 구국에 집중한다.’는 항일 민족통일전선을 발표하였다.⁸⁾ 中共北平臨時工作委員會의 학생 당원인 彭燾은 ‘합법적으로 항일구국의 자유를 얻는 것이 필요하므로 국민당 4기 6中全會에 항일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자.’고 주장하여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다. 1935년 11월 17일 北平의 각 공립과 사립 대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北平市大中學 校學生聯合會를 조직하였다. 베이핑 학생연합은 1935년 12월 9일과 12월 16일에 ‘화북자치’를 반대하는 청원 시위와 시민대회를 조직하였다. 학생들의 청원은 정부의 비밀외교 반대, 모든 내전의 정지와 인민의 언론, 집회, 출판 및 애국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다.⁹⁾

12월 9일 시위대는 北平大學에서 출발하였으나 군경 500명에게 포위되었다. 이날 군경과 충돌하여 체포된 학생만 80명이었다. 학생 대표들은 시위를 해산한 이후에 전체 학교가 동맹 휴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12월 16일 수업에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河北와 察哈爾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冀察政務委員會가 개최된다는 것을 듣고, 시 전체 학생의 청원 시위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 무장경찰과 29군 290단 및 91단의 병력을 동원하였다.¹⁰⁾ 오전 11시에 베이핑 40개교의 학생 1만여 명이 天橋에 집합하였다. 이들은 군경에게 길이 막히자, 천안문 광장 앞에 인접한 상업 거리(前門大街)에서 시민대회를 열었다. 그러

5) 김정현, 「1930年代 中國 知識人の 政治活動과 理念: 救國會를 中心으로」 『동양사학연구』 27, 1988, 108쪽.

6) 南開大學馬列主義教研室中共黨史教研組, 『華北事變資料選編』, 河南人民出版社, 1983, 151~152쪽.

7) 김정현, 위의 논문, 110~111쪽.

8) 「中國蘇聯政府, 中國共產黨中央爲抗日救國告全國同胞書」, 中央檔案館編, 『中共中央文件選集』 10,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 518~525쪽.

9) 「關於12月 9日北平大中學學生示威請願, 反對“華北自治”的報道」(『申報』, 1935.12.14.), 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 編, 『一二·九以後上海救國會史料選集』,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87, 1~3쪽.

10) 「平市學生八千人二次遊行經過詳情」, 『時事新報』, 1935.12.19.

나 군경의 진압으로 학생 부상자는 100여 명에 이르렀다.¹¹⁾

北平 학생들의 청원 시위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에서 항일운동을 지지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상하이 문화계가 가장 먼저 호응하였다. 馬相伯이 주도하여, 沈鈞儒, 章乃器, 王造時, 李公樸 등 280여 명이 서명하여, 12월 12일 「上海文化界救國運動宣言」을 발표하였다.¹²⁾ 이어서, 12월 21일 上海中華婦女同盟會, 婦女生活社, 婦女園地社, 婦女大眾社 등의 부녀 단체와 여성계 인사들이 傷害婦女界救國會를 조직하였다.¹³⁾ 이를 시작으로 상하이에서는 문화계(12월 27일), 대학교수(1월 9일), 직업계(2월 9일), 영화계(2월), 학생연합(5월 27일), 노동계(8월 9일)구국회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구국회가 결성되는 과정에는 공산당 지하당과 공청단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⁴⁾

구국회는 민족연합전선을 주장하는 대중운동 조직으로 정당 조직과는 성격이 달랐다. 간부들은 기본적으로 특정 당이나, 정파에 속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구국회의 주도 세력으로 크게 두 단체가 있다. 그중에서 상하이 문화계는 지식인, 변호사, 교육가 등의 상층 지식인으로 구성되었다. 직업계구국회는 실업계 학생, 사원, 永安 백화점 직원 등의 기층 대중으로 조직되었다.¹⁵⁾ 상하이문화계의 국난구제 방안을 보면, ‘중국의 국난은 소수의 사람이 구제할 수 없으며, 대중이 함께 저항하도록 교육해야 중국이 회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를 알아야 하며, 민의를 표현하고 노선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국회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선전 방법 외에도 ‘현, 시, 향의 기존 조직과 집회를 활용하여 민족 위기를 홍보하고 국난을 해결할 것’을 제의 하였다.¹⁶⁾

구국회는 항일기념일(1월 28일, 5월 30일, 9월 18일)을 활용하여 집회와 시위를 크게 조직하였다. 이들은 초기에 ‘비행 집회’라는 기습시위의 방식을 사용하였다.¹⁷⁾ 가령, 상하이 문화계구국회가 조직한 사례를 보면, 하층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표어를 붙이며, 선언과 전단을 뿌리는 활동을 30분 이내에 완료하는 방식으로 대중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층지도자들이 공공연하게 주도할 수 없었고, 일시적인 활동이라서 그 영향에 한계가 있었다.¹⁸⁾

구국회는 1935년 12월 각계별로 조직되었고, 1936년 1.28 4주년 기념일에 각계구국연합회를 결성하여 역량을 집중시켰고, 4달 뒤인 5월 31일에는 전국총기관인 全國各界救國聯合會를 조직하였다. 구국회는 기존

11) 「關於12月16日北平學生再度示威遊行的報道」, 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 編, 앞의 책, 3~5쪽.

12) 「文化界發表救國宣言」(『大衆生活』第1卷 第六期, 1935年12月12日), 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 編, 앞의 책, 7쪽.

13) 「上海婦女界救國會召開成立大會」, 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 앞의 책, 64쪽.

14) 중국 공산당은 각 구국회가 출범한 뒤에 黨團을 꾸렸다. 문화계 구국회의 黨團 書記는 錢俊瑞 이었고, 曹亮, 王新元, 錢亦石 등이 있었다. 부녀계구국회에는 黨團書記 杜君慧이 있었고, 林立, 張惠英이 성원으로 있었다. 직업계 구국회에는 당의 핵심 小組 成원인 林楓, 雍文濤, 顧準, 王紀華, 陸志仁, 和劉肇 등이 참여하였다. 전국 구국회의 당단은 書記 錢俊瑞가 있었고, 王翰, 石不爛, 張勁夫, 錢亦石 등이 참여하였다(任建樹 主編, 『現代上海大事記』, 上海辭書出版社, 1996, 631쪽).

15) 김정현, 앞의 논문, 123쪽.

16) 「上海文化界救國會國難教育方案」 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 앞의 책, 75쪽.

17) 비행집회는 길가에서 갑자기 열리는 집회로, 사전에 시간 장소를 정하여 군중을 동원한다. 이것은 러시아혁명에서 사용된 선전 방식에서 유래되었다. 중국공산당은 1926년 상하이의 5.30운동 1주년 기념일에서 비행 집회를 처음 조직하였고, 1937년까지 주요한 선전 방식으로 이용하였다(方奇, 「中國共產黨“飛行集會”研究(1926~1937) - 以上海爲中心」,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8, 9쪽).

18) 김정현, 앞의 논문, 144쪽.

의 시민대회 방식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 이를 변형시켜 나갔다. 구국회는 기습시위를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대중에게 선전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에, 구국회는 기념대회, 시민대회, 항일시위를 조직하였다. 구국회는 민족통일연합전선을 지향하였기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평화적인 방식의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내전정지의 구호를 주장하면서도 반정부에 대한 구호는 사용하지 않았다. 구국회가 조직한 초기 집회의 양상으로 1.28 4주년 항전기념일 집회와 「維持治安緊急法令」의 반대 시위를 살펴볼 수 있다.

2. 1·28 4주년 기념대회와 시민대회

구국회는 1936년 1월 28일 상하이 사면 4주년 기념행사로 세 차례의 집단행동을 조직하였다. 이날은 1932년 상하이 공동조계에서 중화민국군과 일본군의 군사적 충돌하여 상하이 군대가 무장해제를 당한 날이다. 상하이문화계구국회의 '1.28 4주년 기념을 위한 선전대강'은 "1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크게 선전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 1개의 문화계 종사자 및 단체에서 1.28의 교훈을 정치주장으로 강조하고, 전체 인원을 1.28 4주년에 동원한다.'고 밝혔다. 대중선전과 동원의 핵심 세력으로 각급 학생, 교사, 교육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민중들을 향해 항일 선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¹⁹⁾

1.28 4주년 항전기념일에 시당부는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행사를 간소화 한 것에 비하여, 구국회는 오전의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시위와 시민대회를 연달아 조직하였다. 먼저, 1.28 4주년 기념대회는 오전 10시 상회의 대례당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²⁰⁾ 대회에는 상하이문화계구국회, 상하이부녀구국회, 상하이시민연합회, 中華婦女節制會, 上海婦女大同盟, 上海女青年會 등의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하였다.²¹⁾ 농, 공, 상, 학, 부녀 등의 각계 민중과 단체의 대표 800명이 참석하였다. 주석단은 모두 19명으로, 그중에는 상하이문화계구국회 소속인 馬相伯, 史良, 沈鈞儒, 沈茲九, 吳耀宗, 何香凝, 章乃器, 李公樸, 周劍雲, 廖茂如, 楊衛玉, 江問漁와 영화계구국회의 歐陽予倩 등이 참여하였다.²²⁾

대회장은 서명치가 있었고, 참석자들에게 '生存縮'이라는 소책자를 나눠주었다. 주최측은 연단에 추모의 뜻을 담은 화환 3개를 놓았고, 오른쪽 하단에는 1.28 기념가의 가사를 크게 인쇄하여 나무판에 붙여놓았다. 대회는 주석단 대표의 개회선언, 열사들에 대한 경례, 연설, 대회 선언문 낭독, 결의안 제의 및 통과, 기념가(의용군행진곡, 1.28 기념가)제창의 순서로 이뤄졌다.

교육가 馬相伯과 변호사 沈鈞儒가 주석단 대표단으로 단상에 오르면서 대회가 시작되었다. 沈鈞儒는 1.28 사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민족 해방을 위해 싸웠지만, 지원이 부족하여 성공하지 못하였다.

19) 「上海文化界救國會對“一二八”四周年紀念宣傳大綱」, 『讀書生活』, 第十九期, 1936.02.10.

20) 「一二八四周年民眾舉行紀念會」, 『第一線』第一卷 第五六期(1936.02.15.), 70~71쪽.

21) 王玉, 「抗戰前上海地區的抗日救國運動: 以救國會為中心的探討(1935~1937)」, 國立政治大學歷史研究所博 士論文, 2002, 130쪽; 「一二八四周年舉行紀念大會」, 『大美晚報』, 1936.01.28.

22) 「一二八四周年舉行紀念大會」, 『大美晚報』, 1936.01.28; 그 외에는 張一鷹, 王曉籟, 劉王立明, 駱清華, 胡鳳翔, 歐陽予倩, 王曉籟가 참여하였다(「紀念一二八四周年, 上海成立各界救國聯合會」, 周天度, 孫彩霞, 『救國會資料』, 中央中央編譯出版社, 2006, 79쪽).

그러나 그들의 피는 민족 해방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만들었다.”고 하였다.²³⁾ 대회의 연설자는 4명으로, 모두 上海文化界救國會 소속이었다. 국민당에 입당했던 경력이 있는 교육가 李公樸과 정치학 교수 王造時 그리고 변호사인 沈鈞儒, 史良이 연설자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국민당의 무저항 정책을 비판하면서 항일전을 촉구하였다.

李公樸은 ‘전국의 대중들이여! 현재의 적막을 깨버립니다! 민족이 스스로 지키는 전쟁의 국면을 만들어, 최후의 승리를 완성합시다!’라고 선포하였다.²⁴⁾ 王造時는 1.28 사건 이래로 중국이 매년 평균 2백만리의 영토, 총 800여만 리의 토지를 상실하여, 만청 정부 때보다 지금이 그 피해가 심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런 속도라면, 중국이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당국이 진정으로 항일을 결심한다면, 민중운동을 개방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령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⁵⁾

史良은 부녀계구국회를 창립한 인물로서, “우리 여성들은 중국 국가의 일부인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부녀계구국회가 상하이 근방에서 홍보와 연설을 진행했지만, 신문에는 그 일이 게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暨南大學과 復旦大學의 대표가 활동 상황을 보고하였다. 暨南大學 대표는 상하이 서쪽 曹家渡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동안 경찰이 개입한 일과 대중이 저항했던 일을 말하였고, 푸단대 대표는 復旦塞假農村宣傳團의 활동과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부를 요청했다.²⁶⁾

이후, 주석단의 章乃器가 대회 선언문을 읽었다. 그 내용에는 1.28 사건의 역사적 교훈으로 ‘참지 말고 분발하여 항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당시에 전국의 군사력을 동원했다면, 민족 해방의 승리를 맞이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정부는 ‘국력을 내부 투쟁에 희생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신문을 검열하며, 문화의 힘을 적의 도구로 만들며, 민중 조직을 박해하여 민중의 구국 열정을 대외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주석단이 정부에게 내전 중지, 언론 및 구국 운동의 자유, 매국노 척결, 전국의 항전 등의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자, 참여자들은 함께 “요구한다”라고 크게 외쳤다.²⁷⁾

대회에서는 4가지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 내용은 상하이각계구국연합회의 성립을 선포하고, 전국 조직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1) 상하이각계구국총회를 성립하여, 이사 30인 선출하는 것 (2) 조직 확대를 위한 전국총회 준비 및 각 사단, 공회인의 구국회 가입 (3) 체포된 애국지사를 도울 것 (4) 공공조계의 巡捕가 경계를 넘어서, 曹家渡에서 사람을 체포하고 애국 운동에 간섭하는 것에 항의 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주석단은 대회의 산회를 선포하면서, 추모식에 가길 원하는 사람은 함께 가자고 말하였다.²⁸⁾

참여자들이 시위대오를 만들어 출발하려 하는데, 한 여성이 자동차로 운전해 와서 시위대에게 대량의 전단과 부녀계 구국회의 간행물인 『大衆生活』을 전달해 주었다. 시위대는 4명이 1열로 정렬하여, ‘1.28시주년

23) 「救亡情報:上海“一二八”四周年紀念速寫」『怒吼』, 創刊號, 1936.

24) 「紀念“一二八”四週年(1936.01)」, 王興, 『上海文史資料選輯』 77, 上海人民出版社, 1995, 37~38쪽.

25) 「在“一二八”四週年上海各界紀念大會上的演講(1936.01.08.)」, 王興, 『上海文史資料選輯』 77, 上海人民出版社, 1995, 38~42쪽.

26) 「救亡情報:上海“一二八”四周年紀念速寫」『怒吼』, 創刊號, 1936.

27) 「特載:上海各界紀念“一二八”四周年大會宣言」『生活教育』第2卷 第24期, 1936.

28) 「(1)上海各界救國聯合會成立」, 中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 編, 『一二·九以後上海救國會史料選輯』,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87, 128쪽.

기념공제 무명영웅묘'라고 쓴 흰색 천을 높이 들고 있었다. 선두에서 부녀계 대표가 조화를 들었고, 여성 500여명과 남성 천여명이 차례로 행진하였다. 여성들은 함께 畢業歌를 불렀고, 다른 참여자들은 青年歌와 1.28 기념가를 불렀다. 시위대가 상하이 도심을 벗어나는 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다.²⁹⁾ 그중에는 이발소의 어린 견습생들도 있었다. 사장은 이를 보고 '왜 또 가느냐?'라면서 소리를 질렀으나, 견습생은 웃으면서 '우리는 지난번에 참가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욕하였으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할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밖에, 공장노동자, 여성노동자, 농민들도 시위대에 참여하였다. 시민들의 합류하면서, 시위대 인원은 2, 3천 명이 더 늘어났다.³⁰⁾

시위대는 상하이 19路 군대가 일본군과 결전을 벌였던 廟行으로 행진하였다. 마침, 시당부의 기념행사가 12시 반에 끝나서, 그 참여자 4, 5천 명이 구국회의 시위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시위대의 총 인원은 약 '1만 명'으로 늘어났다.³¹⁾ 시위대는 廟行에서 묵념을 하였고, 1.28 항일 역사에 대한 연설을 들었다. 이때, 참여자들은 신문기자로 위장한 국민당 첩자를 찾아내었다. 시위대는 그가 지난번에 南京路에서 순찰하며 사람들을 체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시위대는 도망가는 첩자를 기념비 계단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구타하였다. 시위대는 그의 얼굴에 '맞아서 다친 매국노'라는 글을 써서 붙였다. 시위대는 그를 차를 태워서 이동하려다가 경찰에게 저지당하였다.³²⁾

이후, 시위대는 상하이 조계에서 시위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고, 오후 10시쯤 열차를 타고 상하이로 돌아왔다. 이들은 화계와 조계의 경계 지점으로 향하였으나, 조계의 출입문이 닫혀 있었다. 시위대는 조계 측과 30분간 교섭하였으나, 조계로 진입할 수 없었다. 이에, 시위대는 시위를 지속하는 대신에 寶山路에 있는 東方圖書館의 공터에서 시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시민대회는 학생으로 보이는 인물이 임시주석으로 추대되었고, 특정한 의식을 따로 거행하지는 않았다. 주석은 높은 돌계단 위에서 군중들에게 '우리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을 고생하였는데, 지금은 조계에 뛰어들어 시위를 진행할 수 없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잠시 멈출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오늘 시위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을 염려한다는 뜻을 표현하였다. 이에, 시위대는 구호를 함께 외치고 산회하였다.³³⁾ 이날 상하이각계 구국연합회의 성립과 항일집회와 시위의 소식은 상하이의 각 신문에 등재하지 않도록 검열받았다.³⁴⁾

3. 「維持治安緊急法令」 반대 시위와 시민대회

구국회는 상하이 시당부, 국민당 민중훈련부, 국민당 선전부의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다. 국민당 정부는 일본의 廣田三原則을 수용하여, 제1원칙인 항일운동을 단속하는 규정을 실행하고 있었다.³⁵⁾ 1936년 2월 6일,

29) 「救亡情報：上海“一二八”四周年紀念速寫」『怒吼』創刊號，1936.

30) 「上海各界民衆救亡運動偉大壯烈的一天」，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編，앞의 책，187쪽.

31) 「一二八四周年民衆舉行紀念會」〔陳誠〕『第一線』第一卷 第五六期(1936.02.15.)，70~71쪽.

32) 「上海各界民衆救亡運動偉大壯烈的一天」，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編，앞의 책，188~189쪽.

33) 「救亡情報：上海“一二八”四周年紀念速寫」『怒吼』創刊號，1936.

34) 「一二八四周年民衆舉行紀念會」〔陳誠〕『第一線』第一卷 第五六期(1936.02.15.)，72쪽.

상하이 시당부는 구국회의 간행물인 『大衆生活』의 발행을 금지하였고, 상하이문화계구국회의 鄒韜奮과 李公樸이 설립한 生活書店과 量才補習學校 등을 조사하여 처벌하였다. 또한, 王造時에 대해서는 주요 반동분자로 체포하라는 비밀명령을 내렸다.³⁶⁾

국민당 민중훈련부는 상하이문화계구국회의 간행물 발행과 시민대회의 개최를 방해하였다.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민중훈련부 特種社團科科長 胡星伯의 1936년 2월 7일 密報에 의하면, “이 단체는 7일 시상회 등의 2, 3개 장소에서 시민대회를 소집할 예정이므로, 시당부와 시정부는 각 인민단체와 학교에게 참가하지 말 것을 통보하고, 장소의 대여를 금지하도록 한다. 공부국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통지한다.”고 되어 있다.³⁷⁾ 또한, 국민당 선전부는 1936년 2월 12일 「告國人書」를 발표하여, ‘구국회는 공산당이 문화단체 및 지식인을 이용하여 救國의 구호 아래에 권토중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그)이용을 받는 자에 대해서 정부가 엄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³⁸⁾

여기에, 2월 20일 중앙 정부는 「維持治安緊急法令」을 반포하여, 군경이 항일운동을 탄압하는 합법적 권리를 명문화하였다. 이 법은 제3항에 ‘군경은 질서를 방해하고 민중을 현혹하는 집회와 행진을 하면 즉시 해산해야 하고, 주도자를 체포하고 해산을 거부하는 자도 함께 체포한다고 규정하였다.’³⁹⁾ 이 법령으로 베이핑에서 체포된 교수와 학생의 수가 200명이 넘었다.⁴⁰⁾

구국회는 3월 1일과 3월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維持治安緊急法」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였다. 구국회는 공개적으로 시민대회의 개최를 선전하여 대중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행집회 또는 돌발성 시위의 방식을 먼저 사용하였다. 이때, 두 방식은 모두 단시간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민들의 항일 감정을 자극하여서 시민대회의 참여로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월 1일 오후 1시부터 상하이 조계의 卡德路 대극장 입구로 행인들이 모였다. 이날 시위의 참여자는 학생 500여 명 및 시민 2천 명으로 추산된다.⁴¹⁾ 2시에 시위를 시작하는 신호가 나오자, 대기하던 사람들은 즉시 대오를 만들었다. 첫 번째 줄에는 여학생 한 명, 노동자 한 명, 소상인 두 명이 서 있었다. 시위대는 빠르게 행진하였다. 경찰들은 시위대를 보고 영국 조계의 巡捕房에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다. 시위대는 조계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영국 조계지와 화계의 경계인 恒豐路橋로 나아갔다. 시위대는 다리 위에서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다리 아래에서 있던 시민들이 이를 듣고 박수를 보내며 호응하였다. 시위대는 華界의 무장 경찰들이 다가오자, “애국의 무장 동지가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일제히 소리쳤고, “중국인은 중국인을 때리지 않는다.”, “총구는 모두 밖으로 향하자”라고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는 주변의 군중들에게 각종

35) 廣田三原則은 1936년 1월, 제68회 제국의회에서 발표된 대중국 정책에 관한 3가지 원칙이다. (1) 排日인동의 철저한 단속, (2) 만주국 독립 묵인 및 만주국과 화북과의 경제적 문화적 융통성 제휴, (3) 외몽골 등에서 오는 적화 세력의 위협에 대하여 공동의 위협임을 감지하여 공동으로 방어하는 것이 그 요지이다(服部龍二, 『廣田弘毅: 「悲劇の宰相」の實像』, 2008, 96쪽).

36) 任建樹 主編, 『現代上海大事記』, 上海辭書出版社, 1996, 632쪽; 王玉, 앞의 논문, 243쪽.

37) 「國民黨民衆訓練部策劃取締文化界救國會」, 周天度, 孫彩霞 編, 앞의 책, 239쪽.

38) 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 앞의 책, 440쪽.

39) 「維持治安緊急法令」, 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 編, 앞의 책, 192쪽.

40) 「救國消息本埠情報: 三八節上海萬餘市民大示威」 『上海文化界救國會會刊』 第3版, 1936.03.28.

41) 「上海市民反對維持治安緊急法令大示威」 『上海文化界救國會會刊』, 創刊號, 1936.03.28.

색상의 전단을 나눠주었다.

시위대는 곧장 甲北지역으로 갔는데, 많은 시민들이 대열에 참여하였다. 시위대는 두 시간의 시위를 마치고, 시민들의 요청을 수용하여서 寶興路의 황무지에서 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시민들은 단상으로 올라가서 연설하였다. 한 시민은 「維持治安緊急法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구국활동을 제지하려는 법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그는 혼자 반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에 이를 요청하는 방법은 당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들은 오늘 이 시위를 거행한다. 우리 대중들은 우리 힘으로 중국을 구할 수 있다. 대중들이여, 모두 나를 따라서 외치자!’고 선동하였다.⁴²⁾ 이어서, 참여자들은 베이핑과 톈진 학연의 취소 반대 및 항일 간행물의 폐쇄 반대, 애국 동포의 석방, 일본 방적 공장의 희생에 협조 등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민들은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일본공장에서 희생된 노동자를 위해 십여 위안을 현장에서 모금하였다.⁴³⁾ 이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을 때 국가적 시안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민대회를 조직하는 모습은 기존 민간사회의 집회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국회는 3월 8일 국제노동부녀절을 이용하여, 치안유지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하였다. 3월 8일은 1909년 3월 미국에서 남녀의 불평등을 반대하기 위해, 각 도시에서 시위를 진행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 시기 상하이에서는 여성운동과 구국운동을 긴밀히 연계하여 진행되었다.⁴⁴⁾ 3.8 부녀절 기념대회가 오후 2시에 四川路 청년회의 대레당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각 부녀 단체 대표와 여성 약 2천 명이 참석하였다.⁴⁵⁾ 대회장 주변에는 6명의 외국 순경이 곤봉을 들고 서 있었고, 사복경찰도 배치되어 있었다.⁴⁶⁾ 중화부녀운동동맹회 이사장 陳令儀가 인사말을 하였고, 국제부녀협회 대표 雷賽부인의 강연과 통역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연설의 내용이 출산 절제 등을 주제로 한 것이어서, 참가자들이 크게 호응하지 않았다.

이에, 참가자들은 광둥 출신의 여성운동가 何香凝, 추근의 딸 王燦芝, 부녀계구국회 史良에게 연설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여성도 무장하여 제국주의 국가에 투쟁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5.4운동에서 최근의 구국운동까지 과거 여성운동의 역사를 설명하여 참여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대회의 주석이 산회를 선포하고 해산하려고 하였으나, 참석자들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겠다.”면서 시위를 제안하였다. 참석자들은 10여 개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에 시위를 진행하였다.⁴⁷⁾

오후 4시 20분에 참가자들은 ‘3.8부녀절’이란 흰색 깃발을 들고, 4인 1열의 대오를 만들어 전단을 배포하면서 행진하였다. 이때, 상하이구국연합회의 만여 명이 합류하였는데, 이들은 “긴급법령에 반대한다.”는 깃발을 들고 왔다. 시위대가 난징로에 진입했을 때, 학생, 노동자, 여성 노동자들이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들의 의용군행진곡을 부르면서 질서 있게 행진하였다. 시위대가 사용한 구호는 “민중이 자발적으로 무장하여 일본

42) 「上海市民反對維持治安緊急法令」(『救國時報』1936.03.27.), 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編, 앞의 책, 189~192쪽.

43) 「上海市民反對維持治安緊急法令大示威」『上海文化界救國會會刊』創刊號, 1936.03.28.

44) 「小言論：怎樣紀念“三八”國際婦女節」『現代知識(上海)』, 第1卷 第3/4期, 1936.

45) 「“三八”婦女節上海婦女大示威」『上海文化界救國會會刊』第3版, 1936.

46) 「上海三八紀念追記」『一般』, 第1卷 第14期, 1936.

47) 「各婦女團體集會遊行紀念“三八”節」(『立報』, 1936.03.09.), 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編, 앞의 책, 193~194쪽; 「上海三八紀念追記」, 『一般』第1卷 第14期, 1936.

과 전쟁을 하자”, “동북의용군의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하는 것을 옹호한다,” 등 이었다. 그런데 시위대가 프랑스 조계지의 大新路를 통과했을 때, 조계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였다. 시위대는 鄭家木橋와 公館馬路의 사이에서 경찰에게 포위되었다. 경찰은 이들의 깃발을 빼앗고, 구타하였다. 약 50~60명이 중상을 입었고, 1명은 생명이 위독하였다. 시위대는 재결집해서 화계의 民國路和 盧家灣까지 행진하였다.⁴⁸⁾

시위대가 老西門으로 진입하여 茶館을 지날 때, 차를 마시던 사람들이 시위대의 구호와 노래를 듣고 밖으로 몰려나와서 시위에 참여하였다. “各界救亡運動遊行大示威”를 적은 깃발을 든 참여자도 있었다. 이때, 선전대는 길을 따라 걸으면서 시민들에게 시위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시민들은 이를 듣고 시위에 합류하였다. 시위대가 민국로를 향하던 도중에 중국인 경찰을 만나게 되었다. 시위대는 공안국에 보고하려는 경찰의 수화기를 빼앗으며 이들을 설득하였다. 시위대는 “중국인은 중국을 사랑한다.”, “무장동지의 참가를 환영한다.”는 구호를 계속 외쳤다. 일부 경찰은 “우리는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인이기도 하다! 우리는 당신들의 행동에 찬성한다.”라고 말하면서, 시위대열에 4, 5명의 경찰이 합류하여 일정 거리를 함께 걷기도 하였다.⁴⁹⁾

이후, 시위대는 그 부근의 넓은 공터에서 큰 원을 만들고 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시위에 참여한 시민의 수는 3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주변 도로에 기관총을 장착한 경찰차와 무장한 조계 경찰 30명이 일렬로 서서 시위대의 행동을 감시하였다.⁵⁰⁾ 참여자들은 임시주석으로 한 남성을 추천하였다. 주석이 나무판자와 수레로 만든 임시 연단 위에 올라가서 개회를 선포하였다.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동포 여러분! 우리는 각 지역의 애국 민중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중국을 구하기 위해,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 시민대회를 열고 합니다.”라고 밝혔다.

시민대회의 참여자들은 일본인에게 피살된 노동자인 梅世鈞과 馬阿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범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회는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3분간 묵념하였다. 이어서, 난징로부터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연설을 하였다. 그는 “이번에 참가한 사람들은 공, 학, 농, 상이다. 대부분의 민중이 깨어났고, 망국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군경이 참가하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하였다.⁵¹⁾

이어서, 참여자들은 구국 운동을 위한 5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베이핑 학련 취소 반대 및 애국 동포의 석방 요구 외에도 정부의 긴급치안유지법 및 廣田三原則에 반대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항일 간행물 24종의 폐쇄를 반대하면서,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⁵²⁾ 참여자들은 마지막으로 “중화민족 해방 만세”와 “제국주의를 타도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오후 7시에 해산하였다.

48) 「救國消息本埠情報：三八婦女節上海婦女大示威」『上海文化界救國會會刊』第3版, 1936.03.28.

49) 「上海三八紀念追記」『一般』, 第1卷 第14期, 1936.

50) 「各婦女團體集會遊行記念“三八”節」(『立報』1936.03.09.), 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編, 『一二·九以後上海救國會史料選輯』,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87, 193~194쪽.

51) 「上海三八紀念追記」, 『一般』, 第1卷 第14期, 1936.

52) 「救國消息本埠情報：三八節上海萬餘市民大示威」『上海文化界救國會會刊』第3版, 1936.03.28.

Ⅲ. 전국각계구국연합회의 기념대회와 항일시위

1. 5·30운동 11주년 기념대회와 전국각계구국연합회 결성

각계구국연합회는 5. 30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여 기념대회와 시위를 진행하였다. 구국회는 5월 31일과 6월 1일에 걸쳐서 전국각계구국연합회를 결성하였다. 5월 30일은 중앙 정부에서 국치일로 지정하였지만, 시 정부는 시민들에게 조기를 제양하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을 권하지 않았다.⁵³⁾ 구국회의 5.30운동 기념대회는 오후 2시에 시상회에서 개최되었다. 대회는 상하이각계구국연합회의 주도하여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6천 명이 참석하였다. 주석단은 吳耀宗, 史良, 王造時, 李公樸, 章乃器, 沈鈞儒, 王孝英, 顧執中 등으로 구성되었다.⁵⁴⁾ 대회장 내부는 부녀계가 가장자리에 앉았고, 직업계는 우측, 학생계가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었다. 참석자 대부분은 노동자와 시민이었다. 이들은 대회장에 설치된 각계구국회, 상하이부녀구국회, 상하이청년문예계구국회 등의 선전을 읽고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반동 전단을 뿌렸다. 여기에는 ‘민족전선을 파괴하는 xx당을 숙청하라.’, ‘각계구국회를 개편하라.’ 등의 문구가 있었다. 군중들이 이들을 구타하는 소동이 발생하였다.

대회는 주석단 입장, 기념가 제창, 개회 선포, 연설, 결의안 통과, 5.30 기념가 제창으로 이뤄졌다. 주석단의 沈鈞儒는 ‘5.30운동을 기념하는 의의’를 말하였다. 구국회의 王造時와 章乃器, 노동자 대표, 전국학련과 상하이학련 대표가 연설을 하였다.⁵⁵⁾ 王造時는 올해에 5.30운동의 顧正紅 사건과 같은 사례가 세 차례나 발생한 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민족의 위기에서, 각 당, 각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일치단결하여 전 세계의 약소민족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章乃器는 ‘일본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민족구국전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대회전에 반동 전단이 유포된 일을 지적하면서, ‘민족해방통일전선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늘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노동자 대표는 ‘빼앗긴 땅을 되찾아야. 중화민족이 해방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상하이학련, 전국학련의 대표연설들은 민족해방전쟁의 최전선에 서서 최후의 승리를 얻겠다고 이야기하였다.⁵⁶⁾

이어서, 참석자들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내전 중단 및 항일정책 요구 외에도 민족주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도록 헌법을 수정하는 것, 抵制私貨大同盟 조직, 텐진 학생구국운동을 지지하는 내용이 있었다.⁵⁷⁾ 이들은 江灣의 5.30 열사 公墓로 향해 시위를 진행하였다.⁵⁸⁾ 시상회 주변에는 평소보다 3배 이상의 경찰이 배치되었다. 시위대의 “上海各界救國會紀念五卅大會”라는 깃발을 따라서, 주석단은 화환을 들었고,

53) 「明日五卅慘案紀念」『時事新報』, 1936.05.29; 「今日爲「五卅, 慘案十一週紀念」」『時事新報』, 1936.05.30; 「全日五卅安然渡過 本市各界未忘紀念」『時事新報』, 1936.06.01.

54) 「(1)上海民衆集會遊行紀念“五卅”, 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 編, 앞의 책, 195쪽.

55) 「上海民衆熱烈紀念“五卅”」『救亡情報』, 制5期 1936年6月7日; 周天度, 孫彩霞, 『救國會史料集』, 中央編譯出版社, 2006, 92쪽.

56) 「救亡速寫: 偉大的“五卅”紀念在上海」『時代論壇』, 第1卷 第6期, 1936.

57) 「通電」『救亡情報』, 制5期 1936.06.07; 「救亡速寫: 偉大的“五卅”紀念在上海」『時代論壇』, 第1卷 第6期, 1936.

58) 「(1)上海民衆集會遊行紀念“五卅”, 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 編, 앞의 책, 195쪽.

부녀계, 문화계, 학생연합, 노동계 구국회가 단체의 깃발을 들고 행진하였다.⁵⁹⁾ 이때, 조계 순찰부장은 시위 대에게 깃발과 전단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주석단은 경찰의 지시에 따랐고, 시위대의 양옆에는 조계 경찰들이 함께 걸어갔다.

시위대가 華界에 이르자, 중국 경찰들이 시위대를 뒤따랐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그림과 표어가 써진 수백 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왔다. 학생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대열을 형성해서 시위대 곁으로 왔고, 부녀계는 구호대를 조직하였으며, 전단을 배포하면서 합류하였다. 이들은 시위대의 좌우를 둘러싸면서 행진하였다. 시위대는 의용군행진곡과 ‘打回老家去’를 불렀다. 시위대는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국의 노예가 되지 않고, 중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라는 가사를 크게 외쳤다.⁶⁰⁾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5.30의 반제국주의 정신을 이어가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寶山路와 江灣路를 통과하였다.

이때, 집회와 시위의 참여자들이 義勇軍進行曲, 畢業歌, 각종 항일 기념가를 사용한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같은 시기의 정부주도형 시민대회에서 국민당의 당가를 국가로 사용하여, 필수 의례로 포함된 것과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1930년대 중국공산당은 노래를 통한 선전교육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공산당 지도부는 9.18사변 이후로 항일전쟁을 위한 抗日救亡歌詠運動을 진행하였다. 이때, 공산당원 田漢과 聶耳가 義勇軍進行曲을 완성하였는데, 이 곡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애국가가 되었다. 聶耳는 1935년 이후로도 영화 桃李劫를 위해서 畢業歌를 지었다.⁶¹⁾ 이러한 노래가 구국회의 시위에서 매년 사용된 것은 공산당의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구찰대는 시위 행렬로 정차 중인 운전자들에게 전단지들을 나눠주었다. 시위대는 商務印書館의 문 앞에 멈추어서 “노동자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라고 외쳤다. 그리고 10분 만에 노동자 대부분이 시위에 합류하였다. 이때, 시위대 뒤쪽에서 전단을 나눠주던 사람과 노동자 대표가 체포되었지만, 시위대는 흠어지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원을 만들고 추모식을 진행하였다. 이후, 시위대는 북역의 공터로 돌아와서, 노란색 차를 빌려서 연단으로 삼은 뒤에 唱歌전문가를 불러서 시위에서 부른 노래들을 지도하도록 하였다. 근처의 상점과 행인들이 노래를 듣고서 시위대 주변에 모여들었다. 시위대는 “중화민족 해방 만세”를 외친 이후에 해산하였다.⁶²⁾

구국회는 이어서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간 전국각계구국연합회의 성립대회를 진행하였다.⁶³⁾ 이를 위해 60개 이상의 구국 단체와 18개 성시를 대표 50명이 모였다. 이들은 각 당파의 협력을 촉구하면서, 민족혁명전쟁을 통해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할 것을 결의하였다.⁶⁴⁾ 6월 2일 전국구국회는 대표를 파견하여 시장 吳鐵

59) 「救亡速寫：偉大的“五卅”紀念在上海」『時代論壇』，第1卷 第6期，1936.

60) 「打回老家去」，麥新，孟波 編選，『大眾歌聲』，上海大眾歌聲社，1938，38쪽.

61) 「義勇軍進行曲和抗日救亡歌詠運動」王興 編，『上海文史資料選輯』77，上海人民出版社，1995，229~233쪽；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 編，앞의 책，238쪽.

62) 「(1)上海民衆集會遊行紀念“五卅”」，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 編，앞의 책，196~198쪽.

63) 「全國各界救國聯合會創立總會記詳」(1936年 5月 31日~6月 1日)，周天度，孫彩霞，『救國會史料集』，中央編譯出版社，2006，95쪽.

64) 「全國各界救國會成立大會記詳」，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 編，앞의 책，142쪽.

城을 접견하도록 하였다. 구국회 대표 沈鈞儒, 章乃器는 시장에게 전국 구국회가 성립되었음을 설명하면서, 단체의 선언문과 「抗日救國初步政治綱領」을 정부에 등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시장은 ‘전국각계구국회가 소수의 야심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구국회 책임자를 체포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오 시장은 다음날 대학교와 중학교 교장들과의 다과회를 열어, ‘나라가 위급한 시기에, 정부는 인민에게 (의견을) 표시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표시한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오 시장은 각 학교의 교장들에게 구국회 조직을 단속하도록 요청하였다.⁶⁵⁾ 이처럼, 전국단위 기관을 조직하였으나, 구국회의 집회와 시위 활동은 오히려 정부의 강도 높은 탄압을 받게 되었다.

2. 9·18 만주사변 5주년 기념 항일시위

9월 18일 만주사변 5주년 기념 항일시위는 구국회의 집회와 시위 중에서 가장 큰 유혈사태가 일어난 사례이다. 중국인에게 9월 18일은 국치일이었지만, 일본인들은 만주 획득을 크게 선전하는 날이었다. 각계구국연합회가 시민들에게 발표한 글을 보면, 일본은 9.18 기념 소책자를 발행하였고, 상하이와 칭다오에서 기념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주중대사 가와고에 시게루가 외교부에 중국인들의 ‘9.18’ 기념을 금지하도록 요청했는데, 행정원이 이를 수용하여 기념행사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고 비판하였다.⁶⁶⁾

구국회는 9월 초부터 시정부에 9.18 기념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것을 알렸는데, 당국은 이를 묵인하기로 했다. 9월 12일에 吳鐵城 시장은 행정원 명령을 이유로 구국회의 기념행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념회에 참여하기로 했던 시상회, 지방협회, 律師公會, 記者公會, 市總工會, 市民聯合工會 등 20여 개 단체는 모두 시장의 결정을 반대하였다. 상하이 지방협회 회장 杜月笙, 금융업에 종사하는 錢新之, 교육가 黃炎培 등이 시정부와 여러 논의를 거쳐서, 9.18 기념회의 원안을 포기하고, 기념비 기공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하였다.⁶⁷⁾ 시에서는 행사의 참여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하여 미리 입장권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구국회의 계획안을 살펴보면, 18일 오후 3시에 南市의 十六鋪 일대에 모여서 참여자들이 공공 버스를 함께 타고, 30리 정도 떨어진 漕河涇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구국회는 17일 저녁에 2천 명을 동원하여 게릴라 선전을 시행하였다. 선전대는 4명이 1조로 구성되어 작은 골목에서 활동하였다. 시정부는 이러한 선전이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서 중지시켰다. 또한, 시정부는 오후에 돌연 구국회의 기념행사를 취소하라고 통보하였다. 프랑스 조계 경찰은 이날 여러 명을 체포하여 전단을 압수하였다. 이들은 조계 경찰에게 18일 오후에 南市에서 시위를 할 것이라 진술하였다. 이에, 화계와 조계는 18일에 공동으로 방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⁶⁸⁾

18일 구국회의 남녀학생과 노동자 등 1천여 명은 상하이 西門 부근에 일찍부터 모였다. 2시부터 프랑스

65) 任建樹 主編, 『現代上海大事記』, 上海辭書出版社, 1996, 641쪽.

66) 「(3)上海各界救國聯合會爲上海市民衆紀念“九·一八”發生慘案告全國同胞」, 中共上海市委黨史 資料征集委員會 編, 『一二·九以後上海救國會史料選輯』,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87, 208쪽.

67) 『華事外報: 上海九一八紀念日記實』, 『外論通信稿』 1597, 1936.

68) 『華事外報: 上海九一八紀念日記實』, 『外論通信稿』 1597, 1936.

조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조계 경찰은 전단을 소지한 사람들을 체포하였다. 十六鋪의 군경은 주변의 모든 행인을 수색하였다.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에 기념 행사의 책임자인 沈鈞儒, 章乃器, 李公樸은 대중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참여자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구국회 소속의 한 참석자는 ‘당국은 구국연합회가 漕河 부근에서 기념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 금지령을 각 조에게 알리지 못해서 예정대로 서문에 집결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참여자들이 대열을 만들어 漕河로 통과하려고 하면서 경찰과 충돌하게 되었다.’고 회고했다.⁶⁹⁾

오후 3시 반에 지휘부는 시민들에게 동남대극장으로 가라고 말하였다. 사전에 입장권을 받고 친구들과 참여한 학생에 따르면, ‘20분 정도를 기다렸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표를 사서 극장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밖에서 사람들이 항일 구호를 외쳤고, 의용군행진곡을 부르면서 행진하였다.’라고 하였다.⁷⁰⁾ 시위대는 조계의 출입로가 막혔기에 서문으로 향하였다. 시위대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경찰들이 감시하고 있어서 합류하는 인원이 많지 않았다.⁷¹⁾ 한 참여자는 이러한 시위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참가를 환영하였다. 그들이 열정적으로 참가하면 우리의 용기를 더해졌고, 구호를 크게 외쳤다. 온 민족이 이렇게 단결하면 우리의 적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회고하였다.⁷²⁾

시위대가 서문 공설운동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막으면서 15명을 체포해갔다. 시위대는 대오를 정비하여 4시 20분경에 老西門에 진입하였다. 이곳에는 공안국의 무장경찰, 무장보안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길을 막고 경찰봉과 총검으로 시위대를 공격하였다. 시위대는 구국회의 일관된 정책인 ‘평화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군경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군경의 구타에도 저항하지 않았다. 일부는 경찰의 포위를 뚫고 주변 점포로 도망갔지만, 다시 경찰에게 붙잡혀왔다. 이날 경찰은 시위 진압 중에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기도 하였다.⁷³⁾

시위대의 선두에는 여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중국인은 중국인을 때리지 않는다.’라고 외쳤지만, 경찰의 채찍에 등을 맞았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은 약 40분간 계속되었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도 경찰에게 구타를 당했다. 시민들은 시위대가 공격받는 모습을 보고, “모두 중국인이야, 중국인은 중국인을 때리면 안된다.”라고 외쳤다. 이날 부상자는 약 100여 명이었고, 약 30명이 구속되었다.⁷⁴⁾

구국회는 다음날인 19일 정부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담당 관리의 처벌과 민중의 구국운동 개방하라고 주장하였다. 구국회는 “그날 사람들은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행진하였다. 그들은 치안을 어지럽히지 않고 단지 애국 열정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정부가 구국회의 “중국인은 중국인을 때리지 않는다.”는 구호를 공산당의 것이라고 역선전한 것은 거짓이라고 비

69) 「9.18 5周年在上海(馬洛)」 『救亡情報』, 1936.10.04.

70) 「報告2」 『救亡情報(9.18 5周年血案號外)』, 1936.09.28.

71) 「華事外報：上海九一八紀念日記實(法文上海日報)」, 『外論通信稿』 1597, 1936.

72) 「9.18 5周年在上海(馬洛)」 『救亡情報』, 1936.10.04.

73) 「(3)上海各界救國聯合會爲上海市民衆紀念“九一八”發生慘案告全國同胞」, 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 編, 앞의 책, 210쪽.

74) 「(2)“九一八”五周年紀念血案記詳」(『救亡情報』, 1936年 9月 22日), 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 編, 앞의 책, 207쪽; 中共上海市委黨史研究室 編, 『上海抗日救亡史』,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5, 286쪽; 「9.18 5周年在上海(馬洛)」 『救亡情報』, 1936.10.04.

판하였다. 구국회는 이 구호가 단순히 공산당의 주장이 아니며, 그 말이 틀린 주장이라면, ‘중국인이 중국인을 때려야 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였다. 구국회는 동북의 괴뢰 군경이 중국인을 구타하는 상황과 일본 언론에서 정부의 항일운동 탄압을 칭찬한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행위를 매국노와 같다고 비판하였다.⁷⁵⁾ 구국회는 이후로도 10월 22일 루선의 장례식과 11월 12일 쑨원 탄생 기념대회에서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11월 23일 상하이 시정부가 구국회의 주요 인물 7인이 체포하면서, 그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항일 집회를 조직하기 어려워졌다.

IV. 맺음말

1936년 상하이 구국회의 항일집회와 시위는 훈정체제 하에서 민간주도형 집회가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구국회는 1936년 1월부터 11월까지 여러 항일기념일을 활용하여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였다. 그중에서 본고는 구국회의 활동을 전국조직의 결성 전후로 나눠서 8개월간 집회의 변화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국회의 초기 집회를 기존의 시민대회와 비교해보면, 집회를 조직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시민대회는 민간단체가 연합하여 조직을 결성하고, 그 조직력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옥내 또는 옥외의 장소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집회와 가두시위를 진행한다. 그러나 구국회는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지 못하였기에, 시민대회를 공개적으로 홍보하여 개최하기 어려웠다. 이에, 구국회는 먼저 항일기념일에 기념대회 또는 시위를 조직하여 일정한 참여자들을 확보한 뒤에 시민대회를 조직하였다.

구국회가 약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조직을 결성한 이후에는 오히려 집회를 조직하는 것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이에, 구국회는 항일기념일에 시위를 조직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이는 구국회 조직의 체계성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탄압으로 집회의 장소 대여 및 기념일 행사 진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일정한 장소에 대중이 모여야 하는 집회와 다르게 시위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게 된다. 이때, 시위대가 소지하는 깃발과 전단은 중요한 정치적 선전 도구로 이용된다. 구국회는 경찰의 규제로 시위에서 선전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선전대와 노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구국회의 선전대와 시위대는 거리에서 시민들과 접촉하여 참여를 이끌었고, 구호 제창 외에도 항일가곡, 의용군행진곡 등의 노래를 부르는 방식을 새롭게 이용하였다.

이러한 구국회의 항일집회와 시위는 시민들에게 개방적이었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집회와 시위의 참여 대상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중국인 군경까지 포함되었다. 이는 집회의 목적이 정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적 구호를 강하게 표현하면서도, 반정부적인 구호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구국회가 항일민족통일전선의 수립을 지향하면서, ‘내전 정지’와 ‘일치 항일’을 촉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집회와 시위에서 “중국인은 중국인을 때리

75) 「(6)上海各界救國聯合會告密士書」, 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 앞의 책, 214~215쪽.

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민족을 강조하는 구호가 자주 사용되었다.

구국회의 ‘구국’에 대한 이념은 곧 ‘민주’를 촉구하는 사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구국회가 조직한 집회의 연설과 결의문에서 항일 주장을 기반으로 민주 민의까지 포괄한 제안에 반영되어있다. 구국회는 항일을 위한 각종 선전뿐만 아니라, 항일운동의 주체인 시민의 집회, 출판,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정부가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구국회의 사례는 1930년대 민간사회의 항일집회와 시위에 시민대회의 방식이 재현된 것과 공산당의 영향으로 변화한 양상을 함께 보여준다.

〈참고문헌〉

- 『時事新報』, 『大美晚報』, 『讀書生活』, 『外論通信稿』, 『救亡情報』, 『時代論壇』, 『現代知識(上海)』, 『生活教育』, 『一般』, 『第一線』, 『怒吼』, 『上海文化界救國會會刊』
- 麥新, 孟波 編選, 『大眾歌聲』, 上海: 上海大眾歌聲社, 1938.
- 中央檔案館編, 『中共中央文件選集』 10,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
- 中共上海市委黨史資料征集委員會編, 『一二·九以後上海救國會史料選輯』,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87.
- 南開大學馬列主義教研室中共黨史教研組, 『華北事變資料選編』, 河南: 河南人民出版社, 1983.
- 周天度, 孫彩霞, 『救國會史料集』,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06.
- 王興 編, 『上海文史資料選輯』 77, 上海人民出版社, 1995.
- 任建樹 主編, 『現代上海大事記』,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6.
- 上海市委黨史研究室 編, 『上海抗日救亡史』,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5.
- 周天度, 『七君子傳』, 北京: 中國社會科學, 1989.
- 周天度, 孫彩霞, 『1936~1949 救國會史』, 群言出版社, 2008.
- 平野正, 『中國革命的知識人』, 日中出版, 1977.
- 服部龍二, 『広田弘毅: 「悲劇の宰相」の実像』, 2008.
- 김정현, 「1930年代 中國 知識人の 政治活動과 理念: 救國會를 中心으로」, 『동양사학연구』 27, 1988.
- 백영서, 「中國에 市民社會가 형성되었나?: 역사적 觀點에서 본 民間社會의 軌跡」, 『아시아문화』 10, 1994.
- 方奇, 「中國共產黨“飛行集會”研究(1926~1937) - 以上海爲中心」, 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 水羽信男, 「1930年代の上海における章乃器の抗日統一戦線論: あわせて緒形康氏の批判に應える」, 『アジア 社會文化研究』 21, 2020.
- 周天度, 「救國會史略」 『現代史研究』, 1, 1980.
- 陳偉桐, 「略論共產黨與救國會的抗日統戰主張」, 『抗日戰爭研究』 2, 1997.
- 王玉, 「抗戰前上海地區的抗日救國運動: 以救國會爲中心的探討1935~1937」, 國立政治大學歷史研究所博士論文, 2002.
- 侯宜傑, 「清末的言論結社社會自由」, 『史學集刊』 5, 2009.
- Parks M. Coble, Jr. "Chiang Kai-shek and the Anti-Japanese Movement in China: Zou Tao-fen and the National Salvation Association, 1931~1937", *The Journal of Asian Studie*, 1985.2.

* 이 논문은 2023년 8월 27일에 투고되어,
2023년 9월 13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3년 10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 10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The 1936 Shanghai Anti-Japanese Rallies and Protests: Focusing on the National Salvation Association of All Circles**

Park, Jisu*

The 1936 Shanghai anti-Japanese rallies and protests exemplify a case of sustained civic-led Rallies under the Kuomintang's (KMT) Period of Political Tutelage. Since its establishment in December 1935, the National Salvation Association (Guguo Hui) organized diverse anti-Japanese rallies and protests until November 1936. The Association initially organized Commemoration rally and protests on anti-Japanese occasions to mobilize participants before orchestrating civic assemblies. Despite establishing a nationwide organizational structure to consolidate its capacities, the Association faced challenges in conducting open gatherings due to intensified governmental repression. Consequently, the Association shifted its focus from Rallies to protests. It actively employed methods such as banners, slogans, and songs during both rallies and protests. These events not only engaged civilians but also included participation from Chinese police officers, reflecting a commitment to democratic principles alongside anti-Japanese advocacy. This transformation can be attributed to the Association's affiliation with the Communist Party and its alignment with the united front strategy.

[Keywords] National Salvation Association, Anti-Japanese rallies, Anti-Japanese Demonstration, Commemoration rally, Citizens' Assembly

* Lecturer, Seowon University

